

트럼프 미국 대통령 종전 정상외교 마무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

마리라고서 '우크라·가자 종전' 연쇄 정상회담에 이목 집중
하마스 무장해제 압박·이란 핵무기 경고장…중동긴장 여전

연말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서 자신이 마련한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終戰) 정상외교가 29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블로디미르 짠코프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전화로 잇따라 소통했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선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다만, 이를테면 결친 굵직한 외교전에서 이들 분쟁의 완전한 종식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뜨렷한 해법이나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자백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리리고 리조트를 방문한 네타나후 총리와 회담한 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자지구 전쟁은 현재 1단계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평화 구상에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데 이어 중동 대다수 국가가 지지를 표한 결과다.

이날 회담은 양측이 간헐적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분쟁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마스 무장해제 및 이스라엘 철군 확

대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두 정상의 입장에 "자기가 거의 없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에 힘을 실었고, 네타나후 총리도 "생산적인 회담"이라고 입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휴전 2단계 이행을 위한 최대 행정으로 부상한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협약으로 하마스에 끔찍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고강도 위협을 했다.

그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 구상을 지지한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하마스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군의 군사자산을 활용해 핵시설에 결정적 폭격을 가한 중동의 최대 적국 이란에 대해서도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 증강 움직임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폭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서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미국의 평화 협정 중재를 통해 양측이 종전 타결에 95% 접근했다고 언급하는 등 조만간 전쟁 종식을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가 푸틴 관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유엔기구 수사 추진…외교적 면책 박탈

직원 법정 세우고 물·전력·금융 서비스 등 차단 가능

이스라엘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엔기구(NYU)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당시 UNRWA 직원들은 법안에 따르면 UNRWA 직원들은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유엔 산하 기구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례적 조치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UNRWA에 물이나 전력,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을 몰수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산하 기구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례적 조치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제공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미전기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간 UNRWA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UNRWA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10% 이상이 하마스 또는 다른 무장 집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

실은 대부분 빙 빙 차다.

또 이스라엘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권리'를 묵인하며 계속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